

하이파이저널

HI-FI JOURNAL

22

특집 지금 CD사운드 탐구중! 최신 CD플레이어 집중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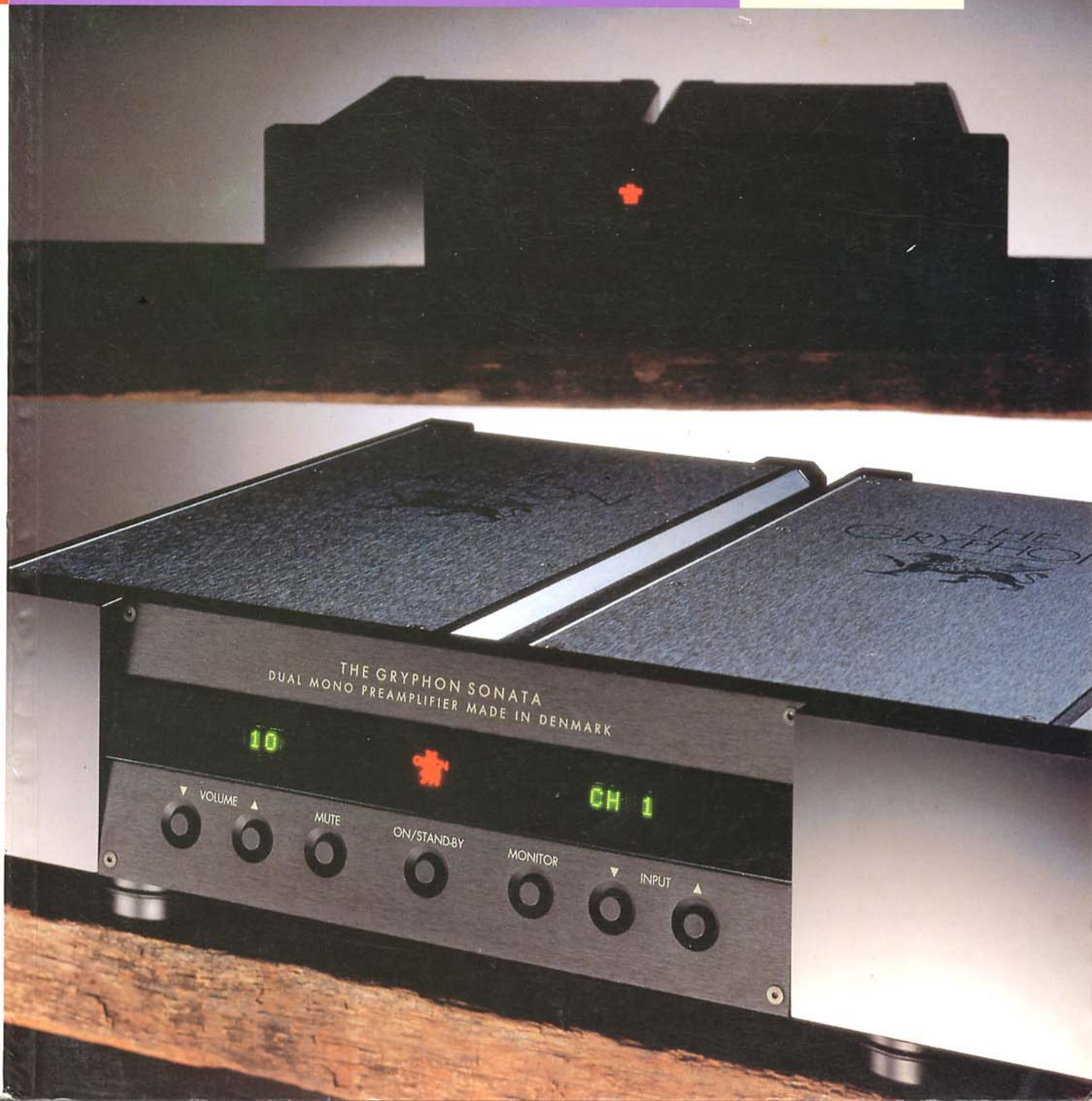
집중시청 AVALON 오, 그 투명한 사운드여!

하이엔드 케이블의 선두주자 MIT 테미네이터 케이블

22

특집/지금 CD사운드 탐구중! 최신 CD플레이어 집중 테스트

집중시청 AVALON 오, 그 투명한 사운드여!



화 제 의 제 품 그 매 력 의 비 밀 을 캔 다 12

PATHOS

IN POWER

엔티그레이티드 램프 '트윈 타워스'로 국내 진공에 성공했던 화루스가 다시 화제다. 핵심 기능을 고급화시킨 하이브리드 파워램프 '인파워'로 가변 바램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램프는 모든 램프의 필요악으로 인식되 온 부귀한 회로 대신 파로스 특유의 인공 회로, 그것도 2개의 회로를 채용한 플랜스드 방식으로, 진공관과 반도체의 장점을 취한 하이브리드형이다. 고급 부품을 적시 수작업에 의해 제조하는 등의 정성과 이탈리아 특유의 예술 감각이 느껴지는 만큼새도 비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음악적인 이 제품만의 비밀을 추적해 보았다.

대담 * 나병욱 · 장경렬

그 디자인의 독특함이 기대감을 갖게 해

장 : 파토스의 제품에 대해서 대담을 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인파워' 파워앰프를 처음 대할 때 세련되면서도 어딘가 강인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름답고 깔끔하면서도 강력한 힘으로 충만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나 : 정말로 독특한 모양새의 앰프입니다. 사실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점에서 저도 처음부터 인파워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파토스가 처음 선보인 트윈 타워스가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였던 관계로, 이와 형제 짝이 되는 분리형 앰프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힐튼 호텔에서 있었던 전자 쇼에서 인파워와 처음 만나게 되었지요. 그때

인파워는 NFB회로를 채용하지 않은 앰프입니다. NFB란 앰프의 출력 전압을 어느 정도 입력단으로 돌려보내 입력 신호의 일부를 차단하기 위한 회로입니다. 그 결과 앰프가 유도하는 신호의 찌그러짐과 잡음을 줄일 수 있고, 출력 임피던스를 줄여 뎀핑값도 증가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음의 자연스러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악적인 존재라 할 수 있지요.

는 앰프의 회로 특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전시장에서 들어보았던 음질 역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진지하게 시청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기기가 상당히 재미있는 모양의 앰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앰프 앞에 2개의 진공관이 장착되어 있는데 흡사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리를 삼각형으로 붙여 만들었던 만화경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유리처럼 반사되는 삼각형의 공간 안에 2개의 진공관이 장착되어 있기에 마치 3개의 진공관을 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주더군요. 그런

데 무슨 종류의 진공관인가라는 의아심을 갖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진공관은 2개더군요. 반사로 인한 재미있는 착시 현상을 보여주었던 셈이지요. 또 한 가지, 전면 패널이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 차갑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지요. 실제로 들어보지 않았던 상황에서 음질 역시 상당히 차가울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들어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게다가 옮기는 도중 허리를 다칠 만큼 대단히 육중하게 생겼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음을 들어보기 전에 무언가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 : 네, 저도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앰프의 독특한 모양새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 구조 또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파워는 중량감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열어보기가 상당히 쉬운 앰프이기도 합니다. 나사 몇 개만 풀면 바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지요. 인파워의 아래 패널을 열고 보니, 앞쪽 1/3 지점의 차폐판을 경계로 하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져 있더군요. 앞부분에는 진공관 소자와 관련된 1개의 회로 기판이, 뒷부분에는 출력단과 관련된 회로 기판들이 있는데, 원가 절감을 이유로 회로 기판 1개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요즈음 전자 산업계의 추세와는 다른 면모를 읽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앞부분의 회로 기판 옆에 상당한 크기의 토로이달형 트랜스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진공관에 걸여 줄 부하 전압과 히터를 가열할 전압을 생산하기 위한 별도의 전원 트랜스이지요. 앰프를 바로 세워 놓고 보면 방열판 사이에 2개의 전해 콘덴서와 별도의 커다란 철제 케이스

가 보이지요. 이 철제 케이스 안에는 초크 코일과 또 하나의 전원 트랜스가 담겨 있는데, 이 전원 트랜스는 MOS-FET 증폭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로의 특성에 따라 2개의 전원 트랜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앰프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NFB를 걸지 않은 독특한 설계 방식

나 : 또 하나 특징을 말하자면, 일반적인 앰프의 사시 구조가 철판 또는 철판 외부에다가 알루미늄을 댄 것이 보통인데, 인파워는 전원 트랜스와 초크 코일을 장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제 케이스 이외에도 부분부분 동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차폐를 위한 배려겠지요. 회사측의 설명에 의하면, 동판이 차폐 기능을 함으로써 노이즈 레벨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제 사시에 그라운드를 시키는 것보다 동판에 그라운드를 시킬 때 노이즈 레벨이 한결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스파이크의 효용 가치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이 앰프에서도 상당히 견실한 스파이크가 사용되고 있지요. 이것 역시 앰프에 대한 신뢰감을 줍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탈리아의 오디오 기기에서는 생활용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난히 목재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앰프에도 목재가 패널 형태로 내부에 들어가 있더군요. 나무와 금속을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특유의 디자인 감각,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언가 특유의 감각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연히 해보게 됩니다. 증폭 소자로는 헥스 FET라는 특수 소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를 사용한다는 데 대한 메이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군요. 게다가 전해 콘덴서는 이탈리아제로 특수품이라고 하더군요.

장 : 전해 콘덴서의 비닐 피막의 색깔이 아주 고운데 이 역시 디자인상의 배려라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독특하고 멋진 디자인과 깔끔하고 철저한 만들새가 인파워의 매력입니다. 여기 에다 음질만 뛰어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겠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 앰프의 음질 또한 비할 데 없이 뛰어나더군요.

나 : 저 역시 그 점에 관해 동감입니다. 모양도 좋고 잘 만들어진 데다가 음질까지 아주 훌륭하더군요. 이런 점에서 오디오 애호가들이 요구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인파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 앰프의 회로상의 특

성을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무엇보다도 이 앰프는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부귀환 회로를 채용하고 있지 않지요?

장 : 부귀환 회로는 오디오 앰프에서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앰프의 출력 전압의 일부를 입력단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입력 신호의 일부를 차단하기 위한 회로지요. 이로 인해 앰프의 이득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앰프 자체가 발생시키는 신호의 찌그러짐과 잡음을 줄일 수 있으며, 출력 임피던스를 낮춤으로써 앰프의 땀땀도 증가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이 회로는 어쩔 수 없이 음의 자연스러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악인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필요악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파토스 측이 고안해 낸 회로가 바로 '인폴'

화제의 제품 그 매력의 비밀을 전다 12

P A T H O S

INPOWER

(INPOL: Insequitore Pompa Lineare) 회로입니다. 이 회로의 입력단에는 진공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진공관 특유의 음색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최대 전압 스윙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대 전압 스윙을 극대화하는 경우 찌그러짐이 거의 없는 정현파를 얻어 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부귀환 회로가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인폴 회로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특징은 출력단에 싱글 엔디드 방식으로 3개의 MOS-FET 소자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전압상의 이득을

심플하고 콤팩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파토스사의 '인파워' 파워앰프. 전작인 '트윈 타워스'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의 핵심 성능을 확대한 분리형 앰프로 인폴이란 새로운 개념의 회로를 도입한 야심작이다. 인폴 회로는 최대 전압 스윙을 극대화시켜 깨끗한 정현파를 얻기 때문에 NFB 회로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출력단은 싱글 엔디드 방식, 채널당 출력은 75W이다.





인파워의 심장은 인폴 회로입니다. 이 입력단에 진공관을 채용했는데, 이는 진공관 특유의 음색을 얻는 목적도 있지만 최대 전압 스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음의 왜곡이 거의 없는 정현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NFB 회로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또 2개의 인폴 회로를 썼다는 점에서 트윈 타워스와 구별됩니다.

전혀 얻지 않은 채 스피커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전류상의 이득은 필요한 만큼 얻게 되지요. 또한 출력단 반도체 소자의 에미터에 대형 초크 코일을 사용함으로써 출력 임피던스를 줄이고 있는 점이 인폴 회로의 또 하나 특징이지요.

나 : 인폴 회로는 인파워뿐만 아니라 트윈 타워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장 : 인파워는 트윈 타워스에 사용한 인폴 회로를 채널당 2개씩 병렬로 연결하여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요. 1개의 인폴 회로에서 입력단에 진공관을 사용하여 최대 전압 스윙을 극대화하는 경우 찌그러짐이 거의 없는 정현파를 얻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출력은 최고 30W밖에 안 된다는군요. 그 이상으로 출력을 높이게 되면 신호의 찌그러짐을 피할 수 없다고 해요. 결국 출력을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그래도 여전히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지 않을 방도가 없는가 고심한 끝에 파토스 측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트윈 타워스에 사용한 인폴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되, 입력 신호의 위상차가 180도가 되도록 하는 밸런스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플

러스 쪽의 불필요한 신호 증가분과 마이너스 쪽의 신호 감소분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증폭 소자의 특성에 따른 신호의 찌그러짐은 제로 상태가 될 수 없지요. 회로가 대칭 구조인 밸런스 방식이기 때문에 밸런스 케이블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인파워의 입력 단자가 XLR형 한 쌍만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지요. 또한 이 방식으로 인해 최고 75W의 출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군요.

나 : 대체적으로 순A급에다가 75W라면 충실한 스피커 구동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앰프의 출력이라는 개념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분히 메이커측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주파수 대역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1kHz 대역에 맞춰서 출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제작사측이 말하는 출력을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

다. 게다가 인파워만큼 고가의 앰프라면 몇 백W의 출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순A급이라고 해도 다소 출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인파워의 경우 실제 스피커와 연결해서 구동해 보았을 때 출력의 부족을 저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구동력이 좋다는 점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낌없는 물량 투입 앰프를 예술품으로

장 : 아직까지는 인파워와 짝을 이루는 프리앰프가 선을 보이지 않았지요. 아마도 곧 나오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RCA 타입의 입력단자가 더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짝을 이루는 프리앰프가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제 경우 늘 사용하던 프리 앰프와 연결이 불가능해서 BAT의 VK-3i 프리앰프를 특별히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나 : 메이커 측의 설명에 의하면 앰프의 배선이 전부 은선으로 되어 있다더군요. 사실 값으로 치면 은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은을 사용했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메이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은선을 사용했다는 것은 고급품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지요.

장 : 순동 배선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듯이 99.9% 이상의 순은도 만들기는 쉽지 않더라

군요. 아마도 배선으로 사용된 은선은 그와 같이 제작이 어려운 순은선이겠지요.

나 :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기 등에 사용하는 은이 아니고 나뭇대로 온갖 정성을 기울인 은선이겠군요. 그러한 특수 은선을 썼다는 데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파워'는 순A급의 앰프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발열량이 대단하더군요. 방열판에서 발생하는 열이 많아서 이 뜨거운 여름날 고생을 좀 했지요. 난로를 켜 놓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전면 패널을 보았을 때 차가운 소리가 날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열이 많다는 건 진공관 불빛이 따뜻해 보인다는 점 등이 차갑다는 느낌을 상쇄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장 : 진공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데 말씀입니다만, 입력단에 진공관 소

화제의 제품 그 매력의 비밀을 쫓다 12

PATHOS INPOWER

자를 사용하고 출력단에 반도체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반도체 소자의 힘과 스피드를 진공관 소자의 따뜻한 음색과 결합하겠다는 것이 하이브리드형 앰프를 만드는 사람들의 꿈이지요. 이 앰프 역시 그와 같은 꿈을 갖고 만든 것인데, 들어보면서 과연 그 말이 허풍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뜻한, 힘, 스피드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나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하이브리드형 앰프들 가운데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 '이탈리아 제품이라면 디자인이야 괜찮겠지만 음질은 그다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탈리아 제품답게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특징으로, 두툼한 알루미늄 패널과 샤시에는 현대적인 조형미가 넘친다.



것이 우리들이 흔히 갖는 선입견이었는데, 이 하이브리드형 앰프는 그런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장 : 이 앰프를 설계·제작한 것은 보리나토와 안드리올로라는 사람들인데, 이들 가운데 보리나토는 기타를 치고 안드리올로는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학 시절 2인조 악단을 구성하여 온갖 종류의 음악을 다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둘다 깊은 음악적 체험 세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보리나토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안드리올로는 예술사를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이로

써 음악적 체험, 공학적 기술, 이탈리아 특유의 심미안(審美眼)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화룡점청(畫龍點睛)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나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학도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앰프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오디오 기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디오 기기는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음악성과 예술성의 재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디오 애호가란 그런 기기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기 제작자들의 정서, 음악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제 삼자의 의견에 따라 조율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작자 자신의 음악성과 예술적 정열이겠지요.

돋보이는 음악적 표현력 밸런스 감각도 뛰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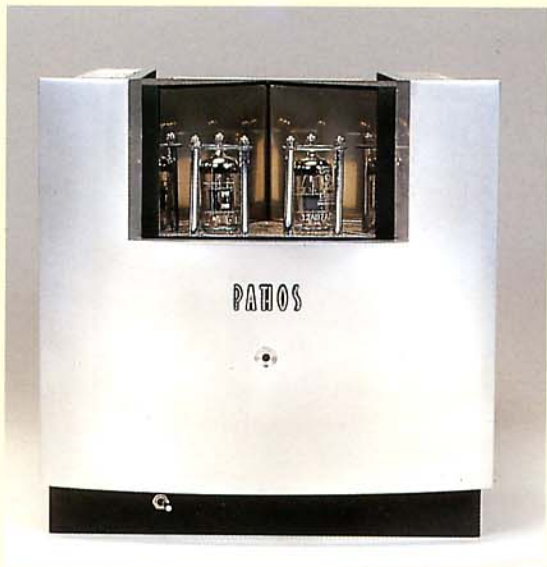
장 : 이제 스피커와의 조화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저는 인파워를 던래비의 SC4 스피커와 연결하여 음악을 시청해보았는데, 이 기기의 조합을 통해 들었던 음악은 정말로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향곡을 시청하면서 제 자신이 실제로 연주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운드 스테이지의 깊이와 넓이도 대단했고, 음악의 분위기 또한 말할 수 없이 잘 살아나더군요. 이처럼 악기의 개성과 조화가 동시에 잘 살아나는 경우를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다고 장담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스피커들과의 조합은 어떠했는지요?

나 : 여러 스피커와 연결해 본 결과 인파워의 경우 크게 스피커를 가리는 편은 아니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유의 색채를 갖고 있지 않은 스피커는 대체로 잘 받아들이지만, 독특한 색채를 지닌 스피커와 연결하는 경우 상당히 거북한 소리도 들려주더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

소리가 거친 고역을 매끄럽게 다스려 주는 앰프라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음의 밸런스가 뛰어나고 소스의 음악성을 잘 살려 주었습니다. 초저역의 재생 능력, 중고역의 섬세함, 음장감, 현장감, 모든 면에서 찬사를 보낼 만한 앰프였어요. 잘 맞는 스피커와 만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성능을 발휘할 좋은 앰프입니다.

앞에서 본 인파워의 모습. 진공관과 반도체의 장점만을 취해 설계한 하이브리드형 앰프로, 위쪽에 12AX7과 12AU7 진공관이 각각 1개씩 보인다. 진공관의 음색을 살리기 위해서 인폴 회로의 입력단에 12AX7 전압 증폭관을 사용하였다.

인파워 파워앰프의 뒷모습. 밸런스 입력단자뿐이어서 언밸런스 접속은 불가능하다.



PATHOS INPOWER

군요. 집에서 시청에 사용했던 스피커 가운데 네덜란드제가 하나 있었는데, 작고 상당히 개성이 강한 스피커였어요. 이 스피커와 인파워를 연결했더니 음장감이 아주 좁아지더군요. 소리가 안쪽으로 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흡사 모노로 녹음된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지요. 물론 음 자체는 해상도면에서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음을 펼쳐 주지 못하고 동글동글하게 뭉쳐 준다는 점에서, 음의 알갱이는 보여주지만 음악성의 면에서 편식을 하는 앰프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장 : 그 스피커를 다른 앰프와 연결해 보시지는 않았는지요?

나 : 물론 해보았지요. 마크 레빈슨의 앰프와 연결했을 때는 소리가 비교적 무난했지요. 인파워와 연결해 본 스피커 가운데 JBL의 S3100이 있었는데, 소리가 거칠거칠하다는 점이 불만인 제품이지요. 그런데 인파워가 그 스피커의 고역을 매끄럽게 잘 다스려 주는 것이었어요. 고역의 한계 때문에 섬세한 맛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는데, 클래식도 들을 만했고 재즈 음악도 괜찮았지요. 결론적으로 말해 거친 스피커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잠재력도 갖고 있다는 점도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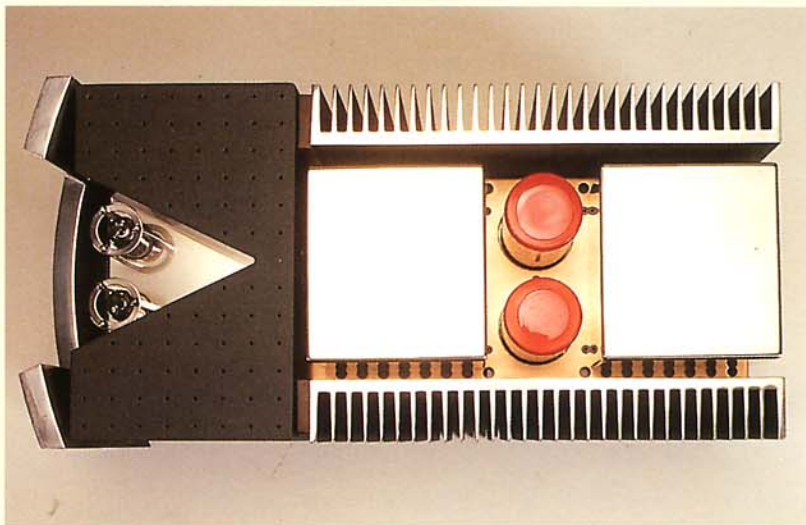
장 : 사실 좋은 앰프를 사면 마땅히 어떤 스피커도 잘 올려주기 바라는 것이 사용자의 욕심이지요. 그러나 이는 무리한 욕심이지요. 뛰어난 연주가들도 자기가 특히 잘 연주하거나 특별히 애정

을 갖는 곡이 있듯이, 아무리 뛰어난 앰프나 스피커라 하더라도 나름의 특성과 색깔을 갖고 있는 법이지요. 그런 점에서 인파워와 스피커의 조합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파워가 궁합이 잘 맞는 스피커와 만나면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만은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나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연주와 수 대역에서 음의 밸런스가 뛰어나고 음악의 음악성을 잘 살려 주는 것이

인파워였습니다. 초저역의 재생 능력, 중고역의 섬세함, 음장감, 현장감, 모든 면에서 찬사를 보낼 만한 앰프였어요. 잘 맞는 스피커와 만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성능을 발휘할 좋은 앰프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군요.

인파워 파워앰프의 뒷면 모습. 전면에 삼각형으로 패인 홈에 한 쌍의 진공관이 보인다. 그 뒤쪽으로 보이는 것은 인덕터 코일과 전원 트랜스를 담은 니켈 도금 철제 케이스이다. 앞쪽의 차폐판을 경계로 하여 앞쪽에는 진공관 소자와 관련이 있는 회로 기판이 있으며 뒤쪽에는 출력단과 관련된 회로 기판이 3장이나 있다.



진공관을 위한 토로이달형 전원 트랜스가 설치되어 있는 인파워의 뒷면 모습. 앰프 좌우 양쪽 면을 장식한 방열판이 또다른 미적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